

KICCE 세미나

영유아 보육·교육 패널 콜로키움

2020. 12. 10 (목) 10: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영유아 보육·교육 패널 콜로키움

- 일 시 : 2020. 12. 10(목) 10:30
- 장 소 :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온라인회의
- 주 최 : 육아정책연구소

시간	세부일정
10:30 ~ 11:00	1. 발표: 한국 영유아 보육·교육 패널 연구 설계 논의 - 이기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11:00 ~ 12:00	2. 토론 - 이승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현경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국제연구실장)
12:00 ~ 12:20	3.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CONTENTS

1. 발표 한국 영유아 보육·교육 패널 연구 설계 논의	1
이기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2. 토론	17
이승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김현경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계·패널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국제연구실장/아동패널연구팀장)	

발 표

한국 영유아 보육·교육 패널 연구 설계 논의

이기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한국 영유아 보육·교육 패널 연구

(조사 설계 논의 자료)

2020년 12월 10일

발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기재 교수

1

목차

- 연구 목표 및 계획 등
- 국내외 패널 사례
- 육아패널 관련 표본설계 방안
- 주요 논의 사항

2

1. 주요 논의 내용(1)

- 신규 「영유아 보육·교육 패널」은 2022년 출생아 패널(2021~2030년: 10년, n=4,000명)로 계획되어 있으나, 2021년 신규 패널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우선임
- Research design_Longitudinal 설계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
- 계획대로 신생아 패널로 할 것인가?
신생아-영아-유아 패널로 구성하는 것은 어떤가?

3

2. 주요 논의 내용 (2)

- 종단+횡단, 신생아패널+유아패널, 또는 3년마다(?) 신생아패널로 가져갈 수도 있는지, 2008년 출생아를 추적하는 한국아동패널과 동일한 설계로 갈 것인지 등 패널설계에 대한 brainstorming의 기초 자료
- 이후 양적+질적, 가구방문조사+온라인 설계, 대체표본, 연도별 주요변인(연구내용, 콘텐츠) 논의가 가능하겠음
- 통계청 승인통계까지 염두에 둔다면 무엇을 챙겨야 하는가?

4

2. 영유아 보육·교육 패널 연구

(1) 연구 목적

- 영·유아의 태아기부터 신생아, 영아, 유아, 아동기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의 양육, 보육과 교육 경험과 환경적 영향, 부모의 내·외재적 요인 등 생애 초기 성장 발달 관련 횡단·종단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의 장기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아동 발달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육아정책의 중장기적 효과를 확인함
- 10년 이상 추적된 패널 연구 결과를 제공하여 종단연구 활성화와 인간 성장·발달, 육아정책 방향성 재정립에 기여함

5

2. 영유아 보육·교육 패널 연구

(2) 주요 연구 내용

- 2022년 출생 0세 연령 한국 영유아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성장과 발달을 지속적으로 추적
- 2020년대 육아정책과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가정과 부모, 지역사회 환경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횡단적·종단적 영향 분석

6

2. 영유아 보육·교육 패널 연구

(3) 연구별 조사 계획

- 2021년도는 패널 구성을 위한 준비 단계
- 향후 조사 대상이 될 임부(妊婦) 패널 참여자 모집, 조사 내용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2022년 조사 준비, 임부 및 신생아 가구 대상 예비조사 등을 진행하는 기초 연도가 됨
- 2022년부터 0세 패널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착수함

7

2. 영유아 보육·교육 패널 연구

(4) 연구 추진 계획: 조사 참여자 모집

- 전국 분만 시행 산부인과 병원 명단을 확보하고 지역별 인구분포, 도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병원 표집을 함
- 해당 병원별 진료 방문자를 대상으로 연구 참여 홍보를 하고 패널 조사 참여자를 모집함
- 최종 표본은 2022년 1월 이후 출산 예정 임부 약 3,000-4,000명으로 구성
- 보건복지부 및 전국 산부인과 병원 단체 및 지역 거점 대학의 협조를 얻어 진행함

8

2. 영유아 보육·교육 패널 연구

(5) 연구 추진 계획: 기초 조사 실시

- 패널 조사 참여에 동의한 2022년 출산 예정 임부 3,000명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경제적 수준, 일반적 배경 변인, 계획, 자녀 및 출산에 대한 미래 희망 등 관련 기초 자료를 면접, 또는 온라인 설문지 작성을 통해 수집
- 필요시, 임부를 전담 산전 검사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해당 태아 건강관련 자료를 수집함.이 때 필수적으로 임부의 정보 이용 동의를 얻어 진행함

9

3. 국내외 패널 연구 사례

(1) 영국 EPPE(Effective Provision of Pre-school Education) Project

- 유아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장기간의 연구로 취학 전과 취학 이후로 구별하여 유아교육의 효과를 장기간 추적한 프로젝트

(2) 영국 EPPSE(Effective Pre-school,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 혼합방식(mixed methods)이 적용된 종단적 연구로 EPPE 프로젝트의 대상
- 아동을 취학이후까지 확장하여 추적한 프로젝트

10

3. 국내외 패널 연구 사례

〈표 II-4-3〉 EPPSE 조사대상, 기간, 방법

분류	내용
조사대상	약 3000명의 아동 대상(6개 지역, 141개 취학전 기관(pre-school))
조사기간	1997-현재 : 3세이상 ~ 16세이상(의무교육을 마치는 시기) 될 때까지 추적연구 아동은 3세, 5세, 6세, 7세, 10세, 11세, 14세, 16세가 될 때마다 인지 및 학업평가를 실시함.
조사방법	면접, 설문조사, 관찰평가, 사례연구(case-studies), 학업 및 사회적 평가 등
수행기관	주관: Department of Education 연구기관: UCL Institute of Education,

주: Taggart, B., Sylva, K., Melhuish, E., Sammons, P., Siraj, I.(2015). Effective pre-school, primary and seceondary education project(EPPSE 3-16+). Department for Education. p.22.

11

3. 국내외 패널 연구 사례

(3) 독일 NEPS(National Educational Panel Study)

-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 부모 및 보호자, 교사, 교장 등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역량(관찰, CBT, PBT, WBP)을 측정하고 있음
- 출생부터 영유아, 초등, 중등, 고등 등 전체 6개의 멀티 코호트를 구축하였고, 전체 표본은 69,058명임
- 이 중 Early childhood 코호트 3,481명과 Kindergarten 코호트 3,007명을 구축하여 진행하고 있음

12

3. 국내외 패널 연구 사례

(4) 미국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Birth Cohort(ECLS-B)

- ECLS-B 조사대상은 2001년 출생한 10,688명의 아동과 그들의 부모 및 교사임
- 행정구역인 카운티(county)를 1차 추출단위(PSU)로 먼저 추출하고, 표본으로 추출된 1차 추출단위 지역의 연간 출생증명서(birthcertificate) 자료에서 신생아 가구를 추출함
- 미국의 2001년 신생아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10,688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 대표성을 가짐

13

3. 국내외 패널 연구 사례

(5)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Korea Children & Youth Panel Study)

- 1차년도 구축 패널 7,071명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개년에 걸쳐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함
- 초1~중1, 초4~고1, 중1~대1에 이르는 3개 코호트의 아동·청소년기의 성장·발달 과정을 파악



자료: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NYPI 패널조사;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http://archive.nympi.re.kr/contents/siteMain.do>).

[그림 II-4-6] KCYPs의 종단조사 모형

14

3. 국내외 패널 연구 사례

(6) 한국 아동패널

〈표 II-4-10〉 한국 아동패널의 조사대상, 기간, 방법

분류	내용
조사대상	- 2008년 4~7월에 출생한 2,562명의 신생아가구 예비표본 대상 - 2008년(1차년도)기준으로 2,078가구가 참여, 현재 2016년(9차년도)기준으로 1,525가구가 유지되고 있음 - 표본유지율: 전체 패널의 70.9% - 조사의 응답자:는 2015년(8차년도) 기준으로 패널 아동의 주양육자(어머니, 아버지), 패널 아동, 아동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담임교사.
조사기간	- 2008년 첫 조사를 시작으로 매해 실시되고 있음 - 성인기에 진입하는 시점인 2027년까지 실시 예정
조사방법	- 전화조사, 지필식(우편)조사, 가구방문조사(주양육자, 아동), 온라인조사, 병원방문조사
수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자료: 1) 이정림·김길숙·송신영·이예진·김진미·김소아·김신경(2015). 한국아동패널 2015. 육아정책연구소, pp. 54-65.

15

4. 영유아 패널 구축을 위한 표본설계

(1)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또는 읍면동 활용

- 읍면동을 1차추출단위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표본 읍면동의 행정기관 협조를 얻어 표본으로 추출된 해당 읍면동의 출생신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면 읍면동을 1차추출단위로 활용하는 방안도 매우 효율적인 표본추출 방안임
- 전국의 신생아가구를 이론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대표할 수 있는 표본추출이 가능함
- 행정기관의 협조를 얻어 표본 읍면동의 출생신고 명부를 확보하는 것은 가능한가에 검토가 우선임

16

4. 영유아 패널 구축을 위한 표본설계

(2) 산부인과 병원 활용

- 산부인과 진료를 하는 병원을 1차추출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표본추출 방안임**
- 예시로 2017년 연구에 의하면 1년 동안 1건 이상의 분만이 있는 의료기관 수는 1,938개소이고, 이 중 1년 동안 50건 이상 분만 건수가 있는 의료기관은 725개소임
- 1년 동안 50건 이상 분만 건수가 있는 725개 의료기관의 분만 건수는 전체의 97.6% 임
- 725개 의료기관을 표본추출틀로 하는 간주하면 전체 분만 건수의 약 98%를 포괄함

17

4. 영유아 패널 구축을 위한 표본설계

(2) 산부인과 병원 활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분만건수 관련 자료의 의료기관 명부를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로 활용하고, 해당 명부의 산부인과 진료 의료기관들을 1차 추출단위로 활용하는 경우 효과적인 표본추출이 가능함
- 1단계에서는 의료기관을 추출단위(sampling unit)로 하고, 2단계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신생아 가구)를 추출단위로 사용함

18

4. 영유아 패널 구축을 위한 표본설계

(2) 산부인과 병원 활용: 층화 방안

- 병원구분: 대형병원(종합전문병원/종합병원)과 병원, 의원 등으로 구분
- 시도는 다음과 같이 6개 권역으로 묶어 층을 구성한다.
 - 서울 : 서울
 - 경기/인천권 : 경기/인천
 - 충청/강원권 : 대전/충북/충남/강원
 - 경북권 : 대구/경북
 - 경남권 : 부산/울산/경남
 - 전라/제주권 : 광주/전북/전남/제주

19

4. 영유아 패널 구축을 위한 표본설계

(2) 산부인과 병원 활용(2017년도 연구)

- 전국에서 표본으로 추출되는 의료기관 수는 73개소
- 조사되는 신생아 표본크기는 3,010명
- 서울의 경우, 서울의 대형병원의 경우 5개 의료기관에서 평균적으로 50명의 신생아를 추출해 개략적으로 250명의 신생아 표본을 확보하게 됨

20

5. 주요 쟁점 및 논의 (1)

- 「영유아 보육·교육 패널」은 2022년 출생아 패널(10년, N=4,000명)로 계획되어 있음. 2021년 신규 패널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우선
- <쟁점 1> 계획대로 신생아 패널로 할 것인가? 신생아-영아-유아 패널로 구성하는 것은 어떤가?
 - 우선적으로 연구목적을 고려해야 함. 신생아 패널, 신생아-영아-유아 패널 모두 구축 가능하며 장단점이 있음.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방안 선택
 - 유아 패널은 유아원, 유치원 등을 이용하여 구축하는 방안 고려

21

5. 주요 쟁점 및 논의 (2)

- <쟁점 2> 종단+횡단, 신생아패널+유아패널, 또는 3년마다(?) 신생아패널로 가져갈 수도 있는지, 2008년 출생아를 추적하는 한국아동패널과 동일한 설계로 갈 것인가?
 - 패널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됨. 여러 개 코호트를 함께 유지 운영하는 방안이 신생아+유아패널이고, 3년마다 신생아 패널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도 있음. 각 방안에 따른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로 생각됨
 - 한국아동패널의 경우는 1개 코호트를 10년간 유지하는 방식임. 다른 방안으로 3년 또는 5년에 신생아 패널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22

5. 주요 쟁점 및 논의 (3)

- <쟁점 3> 이후 양적+질적, 가구방문조사+온라인 설계, 대체표본, 연도별 주요 변인(연구내용, 콘텐츠) 논의도 필요함

- 양적+질적 조사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연구 문제와 관련된 사항임. 가구방문 또는 온라인 조사 병행은 조사방법과 관련된 문제로 추후 논의해도 가능할 것임

- 연도별 주요변인 논의는 2021년도 연구에서 가능한 전체적인 연구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임

23

5. 주요 쟁점 및 논의 (4)

- <쟁점 4> 통계청 승인통계까지 염두에 둔다면 무엇을 챙겨야 하는가?

- 새로운 패널 구축의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어야 통계청 승인과 패널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임

- 통계청 승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중복 통계 여부임. 다른 통계조사 또는 패널조사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것이 필요함

- 통계청 승인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는 설문지, 표본설계 보고서, 통계표 등임. 가능하면 통계청 승인을 득한 후 기초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4

감사합니다.

25

■
■
■

토론

이승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김현경 |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양계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계·패널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은설 | 육아정책연구소 국제연구실장/아동패널연구팀장



토론문

이승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뜻깊은 조사의 기획과정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주신 자료는 모두 검토하였고, 제가 의문스러운 부분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슈 1. 기존 한국아동패널과 신규 패널조사의 명확한 차별 점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 생각합니다. 우선 새롭게 기획하시는 ‘영유아 보육 교육 패널’ 연구는 주신 자료들만으로는 기존의 한국아동패널과 조사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업 계획서 상 주요 연구내용을 확인해도 「아동발달 특성, 부모 및 가구 특성, 보육 교육 기관 및 학교 특성, 지역사회 특성, 정책 특성」은 기존 한국아동패널과 새로운 패널조사가 공통적이고 「임신기 부모·환경·정책 특성 등, 두 개 연령 코호트 간 차이 및 변화 양상」의 두 가지만 신규 패널조사 내용에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존 한국아동패널과 차별적인 신규 패널조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조사에 보완하는 정도로 충분한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완전히 다른 조사내용과 조사목적을 기획하고 계신다면 새로운 조사로서 통계청 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현재 급변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등 추가적인 조사내용이 필요한 것이라면 새로운 조사를 꾸리기보다는 기존의 한국아동패널에 2기 조사 등으로 신규패널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적 손쉽게 가능한 방법은 첫째로 기존 한국아동패널의 2008년 패널들은 계속 추적하고, 2022년 신생아를 새로운 패널로 추가하여 2개의 패널이 다른 코호트로 계속 추적되고 조사내용도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세대 간 비교분석이 가능하고, 정책의 변화와 그 효과에 대한 파악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역시 2008년 패널을 유지하고 2022년 신규패널을 추가하면서 기존 조사 내용 중 계속 필요한 내용은 공통문항으로 유지하고 신규문항을 추가하여 공통문항은 패널 간 비교분석에 활용하고 신규문항은 2022년 신규패널에서만 분석에 활용하는 등 모듈 방식의 문항 구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패널조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더 명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예산 증액을 통해 패널 추가만으로도 필요한 목적의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슈 2. 기존 표본배분의 기준과 신규 패널조사의 표본배분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기존 한국아동패널에서 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지 못한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이 부분에 대해 보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매우 공감합니다. 표본배분 기준은 기획 단계에서 미리 고려되어야 하는데 취약계층(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도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을 포함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더 고려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자녀의 출산과 육아에 대해 올해 ‘여성관리자패널조사’에서 조사를 수행한바 다양한 형태의 가족, 다양한 형태의 출산과 육아의 모습들이 파악되었기 때문에 표본배분 기준이 더 세부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이 다양하고 정책적 수혜를 받는 정도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개인의 출산 및 육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조사내용으로 포함할 범위를 결정해야 표본배분 기준도 명확히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슈 3. 신규 패널조사가 어떤 목적의 자료로 생산되어야 하는가?

일단 정해진 바는 2022년 출생아 4,000명을 시작으로 패널조사를 꾸린다는 점이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패널조사가 기본적으로 첫째, 통계청 승인통계로서 둘째, 부처의 요구대로 누리과정 등의 보육 및 교육 정책의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자료를 생산해야 하는 것이라면 가장 단순하게는 너무 많은 조사내용을 담기보다는 명확하게 정책적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로 방향을 잡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기존의 한국아동패널 데이터가 이 부분에 대해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으므로).

현재 예산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조사대상을 최대한 늘리면서(부모의 경제적, 교육적, 사회적 지위 및 환경을 모두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다양하게 분리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하려면 표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꼭 필요한 조사내용만 구성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또 보육 및 교육정책의 ‘효과’를 보고 싶고 10년 구성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3년마다 새로운 신생아를 추가하는 것은 처음 한 번 정도 추가하는 것은 이후 7년 간 추적하여 볼 수 있겠지만 이후 더 추가하는 것은 과연 보육 및 교육정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입니다. 즉, 조사의 목적에 대해 명확한 결정이 우선되어야 이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자료를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슈 4. 그 외 방법론 등

그밖에 부수적인 문제들로서, 양적+질적 방법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으나 실제 패널데이터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입장에서 질적 방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내년 신규 패널을 구축하시면서 기초조사를 실시하실 텐데 가구방문조사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올해 여성관리자패널조사 2기 패널 5,000명을 신규 구축하면서 저희 연구팀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모바일 조사+온라인 조사가 주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관리자패널조사는 2019년에 선호하는 조사 방법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에 따라 모바일조사와 온라인 조사로 세팅을 마쳤고, 신규 홈페이지도 모바일 연동이 되도록 새로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에서 승인통계 관리에 대해서 올해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 한국아동패널을 관리하고 계시기에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변경승인도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되었고 내년부터 더 관리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어 신규 패널조사로 통계청 승인을 준비하신다면 기존 한국아동패널과 완전히 구분되는 목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토론문

김현경 |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연구가 2008년 처음 시작한 이래 10여 년 동안 한국의 영유아·아동 및 가족의 적응과 발달에 관해 소중한 자료를 수집해 왔으며 이로 인해 학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명실 공히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cohort를 대상으로 하는 패널 연구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신규 [영유아 보육·교육 패널]에 대한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가 정리한 4가지 주요쟁점 및 논의에 관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획대로 신생아 패널로 할 것인가? 신생아-영아-유아 패널로 구성할 것인가?
- (2) 종단+횡단, 신생아패널+유아패널, 또는 3년마다 신생아패널로 가져갈 수도 있는지, 2008년 출생아를 추적하는 한국아동패널과 동일한 설계로 갈 것인가?
- (3) 이후 양적+질적, 가구방문조사+온라인설계, 대체표본, 연도별 주요변인(연구내용, 콘텐츠) 논의도 필요함
- (4) 통계청 승인통계까지 염두에 둔다면 무엇을 챙겨야 하는가?

첫째, 신규패널의 디자인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발표자가 언급하신 대로 다양한 패널디자인들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무엇보다 연구의 구체적 목적과 예산(및 인력),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연구가 진행될 예정인지 등에 맞게 설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그리고 관련 복지 정책들이 매우 급하게 변하는 국내실정과, 영유아정책 연구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역할을 고려할 때, 특정한 정책의 실행으로 인한 효과를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내용을 다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아동패널과 같은 형태의 단일 cohort 디자인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Multiple cohort 디자인의 경우(예, accelerated cohort designs), 특정한 정책관련 변화에 대한 age, period, 그리고 cohort 효과를 분석·평가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너무 많은 cohort를 포함하여 너무 자주 측정(the spacing of assessments)하는 것은 실효가 없을 수도 있으니 균형 있는 설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둘째, 신규패널은 기존의 한국아동패널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로서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와 외국의 패널데이터를 비교·분석해 보았을 때 한국아동패널은 대부분이 양부모 가족(two-parent families)을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가족형태(예, 이혼가족, 한부모가족, 조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인구학적으로 중산층에 해당하는 가족을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예, 한부모가족, 미혼모가족 또는 복지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가족 등)을 oversampling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변인들을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주요 발달 변인에 한해서는 multiinformant- multimethod를 좀 더 충실히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유아의 정서조절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부모의 보고 이외에도 간단한 computerized task 들을 포함한다면 연구자들이 훨씬 수준 높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층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현재 아동패널처럼 subgroup만 참여하는 설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보고, 아동보고, 또는 교사보고와 함께 official records/administrative data,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의 데이터 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면 정책개발이나 평가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연구자의 입장에서 욕심을 좀 더 내자면, 2022년에 새롭게 시작할 신규패널이 해외에서 현재 진행 중인 또는 곧 새롭게 시작할 패널과 비슷한 설계를 가지도록 디자인한다면 비교문화적 연구와 국제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되며 국내 학계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신규패널에 포함된다면 이는 신규패널과 다른 통계조사와 크게 차별화되는 핵심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기술한 대로 지난 10년간 한국아동패널이 국내 아동가족학계에 기여한 바는 참으로 큽니다. 매우 제한된 국내 연구 환경을 고려할 때 학계에서 한국아동패널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패널연구를 위해 애쓰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진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규 [영유아 보육·교육 패널]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문

양계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계·패널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한국 영유아 보육교육패널연구」에 대한 이기재 교수님의 발표문 잘 읽어보았습니다. 발표 내용을 듣기 이전에 서면으로 이해한 수준에서 향후 연구 설계와 관련하여 고민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이기재 교수님께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와 기존의 타 패널과의 차별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 3자의 시각에서 언뜻 보기에 현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추진하는 한국아동패널과 연구의 설계, 대상, 목적이 거의 중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들이 점차 성장하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등과 중복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연구자께서 이미 논리를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이 패널을 기존의 패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계승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현재 영유아 보육교육 패널연구인데, 연구의 목적과 방향에 미래사회의 변화와 그에 대한 정책적 고려의 방향 등 좀 더 차별화된 내용을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패널연구의 목적이 현재는 “생애초기 성장발달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의 장기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아동발달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정책의 중장기적 효과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축적된 자료를 통하여 인간의 성장발달, 유아정책 방향성 재정립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책은 결국 보육이나 교육에서 집단 간 격차 해소를 지향하고 보육 및 교육에서의 형평성 이슈를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설계에서부터 취약계층의 문제 등을 미리 고려하여 설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정책의 주요 정책의 흐름이 교육형평성, 성장기회격차 해소 등이라고 한다면 육아정책에서도 이러한 이슈를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두 번째 논의와 관련하여, 보육 및 교육의 형평성 이슈를 패널에 포함해야 한다면 현재 연구대상이 ‘2022년 출생한 0세 한국 영유아’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국 영유아는 누구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영유아인가 한국국적을 지닌 영유아인가의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국적을 지니지 않고서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정확히 추정되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고, 보육이나 교육 뿐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예: 예방접종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사회에 이런 집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국민이 아니라고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영유아 패널에서 이런 고려를 하여 보육과 교육에서의 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표집을 하게 된다면 이들은 모두 빠질 것이고, 산부인과를 통한 표집을 하게 된다면 이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기재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산부인과 병원을 활용한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할 수만 있다면 신생아, 영아, 유아로 나누어서 세 집단을 추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세 집단으로 각각 나누어서 추적을 할 때 그 변화도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코호트를 여러 개 관리하는 것은 연구자 입장에서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연구가 충실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구자를 대거 투입하여 코호트 하나에 최소 한명씩 책임지고 전체 책임자가 전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3년마다 돌려서 매년 신생아, 영아, 유아를 조사하는 것은, 아동기 이전까지 인간의 발달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 3년마다 패널관리를 하는 어려움 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론적 설계는 가능하지만 바람직할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다섯째, 통계승인과 관련하여 대상의 중복도 있지만 조사표 내용의 중복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 연구의 경우 그냥 제시된 내용으로만 판단하기에 기존의 한국아동패널조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연구의 방향성을 잘 정립하는 것이 내용상의 중복을 피하는 하나의 방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적연구나 연도별 주요 변인은 매년 아이들의 발달단계와 관련된 주요이슈가 있으므로, 그 이슈를 중심으로 선정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갈 연령이 되었을 때의 주요 이슈, 아이들이 학교가기 이전에는 입학 위한 이슈, 학교 급이 변경될 때의 이슈 등등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같이 따라가면서 주제를 잡으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론문

김은설 | 육아정책연구소 국제연구실장/아동패널연구팀장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간 연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신규 영유아교육보육 패널 조사 착수를 눈앞에 두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패널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가 콜로키움의 기회를 갖게 되어 우선 다행스럽고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어 가야할 길이 환히 열리는 느낌입니다. 2008년에 시작되었던 기존 한국아동패널 조사를 2012년, 2016년, 그리고 2018년과 2019년 4차례 책임연구자로 진행하면서 참여 패널을 유지하고 조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애쓴 면도 있지만, “왜 패널 표집이 이렇게 치우쳐 있느냐”, “막상 쓰려 보면 사용할 수 있는 변인이 별로 없다”, “해마다 변인이 왜 달라지냐”라는 비판적 질문을 계속 받을 때마다 왜 초기 패널 구축 과정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미리 고려하지 못했나라는 무의미한 책임 회피 반응을 보이곤 했습니다.

발표해 주신 이기재 교수님의 주요 쟁점 논의사항과 함께 조사책임자로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브레인스토밍 수준에서) 연구자들이 같이 생각해볼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1. 연구의 목적 관련

신규 패널 연구의 목적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종단적 시각에서 아동의 발달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의 생산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한국아동패널이 브론펜브레너의 생태적 체계 이론에 근거하여 아동의 발달 검사 도구를 포함해서 영향을 주는 모든 환경, 체계를 측정하는 변인을 선정해서 신생아부터 만19세까지 20년간의 발달적 변화를 추적하는 것과 동일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패널도 0세에 시작해서 만 8세에 종결될 것이 아니라 20년 연장을 계획하는 편이 좋을 것인가, 그리고 기존의 이론적 틀을 그대로 가져가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신생아부터의 시기에 적용될 수 있는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방향성, 그리고 구체

적 정책들이 아동의 성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즉, 정책의 장기적 효과성을 아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다면, 변화하는 정책의 반영과 또한 비교적 길지 않은 기간에라도 정책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2개 내지 3개의 코호트로 패널을 구성해서 신생아+영아(+유아)로 진행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안 중 3년마다 신생아패널을 추가하는 방법이 원칙적으로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현실적이지 못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 번째는 기존 패널이 생산한 결과와의 비교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생각하면 기존과 거의 동일한 변인과 문항으로 질문을 구성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변인이 가진 종단적 불연속성, 일부 변인으로 편중된 활용성, 복잡한 질문 방식과 문항 로직 등의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을 할 수 없을 것인가를 연구진이 시간을 갖고 자문을 거쳐 진행해야 할 듯합니다.

2. 표본 구성과 표집방법 혹은 참여자 모집 방법 관련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나 출생신고 자료는 법에 규정된 법정 조사가 아닌 경우는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이 방식은 할 수가 없지만, 연간 50건 이상 분만하는 산부인과 725개 병원을 1차 표집하고 신생아를 표집 하는 다층표집은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이 방식은 기존 패널에서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이런 방식으로 했음에도 소득이 높은 가구가 많이 포함되고 저소득가구는 적다라는 비판이 계속 나와서, 대형병원(서울의 경우 5대 병원) 중심으로 간다면 표본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형병원 위주로 하지 않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즉 연간 10건 이상 분만 정도로 두면 결과가 다를 것인지 그리고 저소득층을 인위적으로 과대표집하여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예를 들면 지역별로 소득이 낮은 지역에 위치한 산부인과, 농어촌에 위치한 산부인과를 일정 비율로 포함하는 방식은 괜찮을까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요즈음은 인공임신 시술을 통해 임신을 하는 경우도 다수인데, 이들 시술 병원을 별도로 접촉해서 일정 수의 임부를 확보하고 하나의 집단으로 포함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물론 이들은 소득이 높을 수 있지만 또 하나의 특성을 가진 대상 집단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3. 조사 방법 온라인/대면

조사 방법에 대해 2020년 코로나 사태가 불거지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앞으로 대면조사는 많이 힘들어지고 온라인 웹이나 모바일 조사가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유아 패널은 직접 관찰(신체 성장, 환경 관찰)하거나 발달측정(수행검사)하는 조사가 있으므로 만6세 유아기까지는 아동에 대한 대면 조사는 최소화하여 진행하고 부모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온라인으로 바꾸

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응답률이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문항을 간결하게 하고 유선 등으로 즉시적 지원을 가능하게 해서 온라인 접근법을 높이는 것이 패널을 유지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통계청 승인 관련

기존의 아동패널은 통계청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이지만 새로운 패널은 승인 통계가 되면 자료 관리의 측면이나 활용성 제고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므로 이것을 미리 준비하라는 의견에 매우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존 패널이 승인 통계가 되지 못한 이유가 육아정책연구소가 독립기관이 아니기 때문이었다는 증언이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럼에도, 아동패널 관리와 소유권은 연구소가 가지더라도 대외적 협력 기관으로 연구소의 모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이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해당 업무에 대한 협의를 맺어서라도 통계 승인 절차를 시도해 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익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패널 연구를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교수님, 박사님들께 현재 패널연구진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